

문화



▲의재 허백련 작 '백운홍수'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자리잡은 의재미술관 전경. 의재미술관은 2001년 개관 당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남종화의 전통과 가치 알리기 10년

■의재미술관, 개관 10주년 예술잔치 풍성

무등산 증심사 계곡을 걸어올라가다 보면 한 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이 바로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을 이어온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1891~1977년) 선생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만든 의재미술관이다.

의재미술관(이사장 허달재)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수목화 특별기획전, 한·중 작가 교류전과 세미나를 여는 등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다.

의재미술관은 16일 '수목, 근대를 이야기 하다'(7월 17일까지)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수목, 아름다움을 비추는 또 하나의 창'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과 기념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전통회화가 지니고 있는 미의 세계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현대 수목 속의 풍류'(7월 28일~9월 25일), '수목으로 하나님 되다'(10월

6일~10월 25일)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930~1960년 근대기를 겪으면서 남종화의 화풍과 기법이 변모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1부 기획전에서는 의재 허백련을 비롯해 남농 허건, 동강 정운면, 목재 허행면 등이 시기 활동했던 남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01년 개관한 의재미술관은 한국 미술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명 건축가 조성룡씨가 설계한 미술관은 개관과 동시에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62㎡의 의재 미술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와 녹자, 기타 기획상품을 파는 아트샵도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 뒷편으로는 무등산 춘설 녹차밭이 있고, 그 앞에는 의재 선생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춘설헌과 의재 선생의 묘소 등이 있다.

의재미술관은 지난 10년간 남종화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고 되새기기 위한 기획 전시를 열어왔으며 국제교류 행사와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16일부터 수목화 특별전

건축상 수상 건물도 볼거리

'젊은 세대 시작에서'

우리 것에 대한 연구 힘쓸 것"

2001년 '의재-예전, 애토, 애인' 전을 시작으로 '수목화의 흐름' 전(2003년), 의재 선생(2005년), '다향 속에 괤 꿈' 전(2007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 '길 위에 색터' 전(2009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 전(2009

년) 등 굵직한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중 수목화 작가 전시전을 가져왔으며 아시아문화예술인 인큐베이팅 사업 등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했다.

이밖에 삼애헌과 춘설원, 관광대, 문항정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구축해 '의재 선생님과 함께 맞는 자연바람', '디자인 바이 수목', '인문학과 계산 풍류, 문화살롱에서 탐하다', '무등산 춘설자 만들기 체험' 등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도 펼쳐왔다.

허달재 이사장은 "지금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남종화의 맥과 이를 이어온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소개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연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재미술관은 10월 중에 한·중 수목 교류전과 함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222-304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예술 최고의 거장 만레이를 만나다

7월 13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광주 롯데 갤러리는 15일~7월 13일 20세기 사진예술의 최고 거장 만레이(1890~1976)의 진수를 보여주는 '만레이와 사진거장'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전위 사진의 선구자인 만 레이(Man Ray)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조로 광고 받고 있는 으젠느 앙테(Eugene Atget), 영국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가 빌 브란트(Bill Brandt)와 한국 예술 사진계에 큰 획을 그은 주명덕(Joo Myungduck)의 사진을 선보인다.

또 파블로 피카소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해 사진의 기록적 측면을 예술로 승화시킨 루시앙 클레그(Lucien Clergue), 여성의 누드를 초현실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일본의 대표적 사진작가 호소에 에이코(Hosoe Eikoh), 고전적 신비함과 혁설적 아름다움이 묻어 나오는 이리나 이오네스코(Irina Ionesco) 등의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만레이는 1920년~1930년대 일어났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약한 인물. 사진이 가진 화학적 물리적인 기능을 통해 무의식 세계로부터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촉발시키는 작업했고, 솔라리제이션으로 불리는 네거티브 인화, 레이오프라피 등 획기적인 사진기법을 개발했다. 문의 062-221-18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입맞춤' ADAGP, paris. 2011

인물로 활약한 인물. 사진이 가진 화학적 물리적인 기능을 통해 무의식 세계로부터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촉발시키는 작업했고, 솔라리제이션으로 불리는 네거티브 인화, 레이오프라피 등 획기적인 사진기법을 개발했다. 문의 062-221-18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마음 적시는 은은한 플루트 선율

광주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6일 문예회관

한 미뉴엣과 트리오' 등을 선사한다.

또 테너 구제창, 소프라노 김영자씨가 협연자로 나서 '고리운 금강산', '내맘의 강물'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깊은 울림

김재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20일 금호아트홀

김재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가 2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재은은 이번 연주회에서 텔레만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소나타' 4번, 폴란드 작곡가 루토슬라스키의 '수비토', 에드바트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전남대 졸업후 독일로 유학, 카셀과 뷔르

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스콜피아 오케스트라 및 폴레기움 오케스트라와 모나루오케스트라 단원, 링 협약사주단 멤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호남신학대학에 출강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이유정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문태준 시인에게 듣는 詩와 문학세계

비타포엠, 시낭송회·초청강연... 16일 드랭아트홀

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시와 문학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시낭송과 함께 크로

스오버 중창팀 싱애조이의 클래식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시낭송회 비타포엠은 지역에서 활동하

는 시인 등 40여 명의 문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일반인들이 사낭송을 통해 시의 대중화와 소통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시낭송회와 강연회를 개최해왔다. 문의 010-4174-742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엠(vita-poem·회장 고재종)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드랭아트홀에서 시낭송회와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초청강사는 문태준(41·사

전). 2000년 이후 미당문화상, 소월시 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훨씬 넘어서는 '시(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낭송회 비타포